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1. 출장개요

- 가. 출장건명 :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 방안
 나. 출장목적 : 일본 여성농업인 정책 및 지원체계 조사 해외출장
 다. 출 장 자 : 농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은미
 라. 출장지역 : 일본 동경, 야마나시현
 마. 출장기간 : 2012. 12. 3(월) ~ 12. 7(금) (4박5일)

2. 출장일정 및 주요 면담자

일자	이동	방문기관	일정 및 면담
12월3일 (월)	김포→동경 →야마나시	농림수산성	• 경영국 취농여성과 여성고령자활동추진 실 공동참가추진반 松井瑞枝 과장보좌
12월4일 (화)	야마나시 →동경	야마나시대학 농림수산정책 연구소	• 가정학부 가정경제학과 방문 安倍澄子 교수 • 농업농촌영역 총괄수석연구관 小林茂典
12월5일 (수)	동경	(사)농산어촌 여성 생활동지회 협회 日本大學	• 전무이사·사무국장 겸 농산어촌남녀공 동참가추진협의회 사무국장 齋藤京子 • 식품비즈니스 학과 川手督也 교수
12월6일 (목)	동경	明治大學 昭和女子大學	• 식료환경정책학과 市田知子 교수 • 인문사회학부 粕谷美砂子 준교수
12월7일 (금)	동경 →김포	東京農業大學	• 식료환경경제학과 原 珠里 준교수 • 귀국

3. 주요 조사 결과

3.1. 기관

가. 농림수산성 경영국

- 1992년 식료농업농촌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함.
 - 1980년대 농정 전환기, UR, 도시농촌 교류, 지산지소 시작됨. 그 계기는 농업노동력 부족, 후계자의 결혼 상대자 구하기 어려운 문제, 겸업화와 혼주화 등 농

업 쇠퇴함.

- 농정대책 중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정책을 발표함. 그 중 농업 후계자, 법인화 추진 중 농촌 여성을 주목하게 됨.
- 1991년 그린 투어리즘이 있었고 그 와중에 환경, 특히 지산지소 등 농촌에서 지역문제로 전환이 있음.

○ 농촌여성이 정책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도농교류와 6차 산업임.

- 1990년대 당시 30~40대는 1970년대 미니스커트 세대로서 자기결정권, 남녀공동 참가의 의식이 있는 여성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진행함.
- 그들은 '기대되는 세대'로서 기대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고 노력형에게 해당 사업이 전개됨.
- 이들은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았던 여성 인재를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남녀 공동참가의 기회를 획득한 것임.
- 곧 이는 농업 농촌의 발전과 젠더의 활약으로 가시화 됨.

○ 다만, 농업경영자로서의 개념 정의는 아직 약함.

- 여성농업경영자는 1992년 비전에서 농림수산성이 사용함.
- 당시 일본의 가족경영에도 프랑스의 유한책임회사를 지향했지만 일본 농정에서 가족농의 회사화는 발전이 늦어짐에 따라 여성의 경영자로서의 위치는 가족경영협약으로 대신하고 있음.
- 가족경영협약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여성도 농업후계자 지원으로 약 150만엔을 지원 받고 있음.

○ 가족경영협약에 의하면 2012년부터 여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첫째, 6차산업 종합화로서 여성이 다가가기 쉽게 조성함.
- 둘째, 지역에서 사람, 농지플랜에 여성의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높임.
- 셋째, 여성화를 위한 여성네트워크 형성에 지원함.

○ 농림수산성 경영국은 전국여성농업인과 정기적인 만남이 있음.

- 2005년 이전은 생활개선 보급을 중심으로 여성 정책이 수행되었다면, 2005년 이후 보급사업이 약해짐에 따라 인재육성으로 전환됨.
- 특히, 2008년부터 생산국이 기술 및 생활개선의 보급사업을, 경영국이 여성, 고령자, 후계자를 대상으로 인재육성을 전담하는 분야로 분리됨.
- 사업 방식은 1990년대 여성관련 모델사업이 도도부현 단위에서 사업별로 추진되었다면, 2000년대 이후 여성농업인이 직접 농림수산성에 사업을 신청함. 특히 경영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일수록 선별대책이 있으며 경영국이 직접 정보 홍보를 하고, 사무국은 (사)농산어촌 여성생활활동지원협회에 사무국을 두고 있음.

나. (사)농산어촌여성생활활동지원협회

- 농림수산성 산하기관으로 농촌여성 생활개선회 지원 기관임.
 - 1957년 설립 생활기술연수관에서 생활개선회(농촌농민 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단기 생활기술 보급에 주력함.
 - 1995년 명칭이 바뀌어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됨. 시대 변화와 함께 농촌여성의 지위향상과 생활활동을 지원함.
 - 1995년, 사업목적을 농산어촌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하여, 명칭을 사단법인 농산어촌여성·생활활동지원협회로 변경함.
 - 현재, ‘남녀공동참가사회기본법’ 및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기초하여, 여성이 파트너인 남성과 함께 경영이나 지역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남녀공동참가 사회의 형성을 향한 각종 움직임의 지원을 실시함.
 - 유일한 농산어촌 여성지원센터의 기능을 가진 단체로서 여성농업인의 도전을 지원함.
 - 2010년 2월 설립된 농산어촌 남녀공동참가추진협의회의 구성단체로서 또한 그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며 남녀공동참가사회 형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
- 농림수산성의 정책을 도도부현에 하달하는 중간 기관으로서 도도부현의 기술보급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기술보급인 활동과 여성단체의 네트워크 활동이 주요 업무임.
 - ‘농산어촌 남녀공동참가 추진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함.
 - 현재 근무자는 상근 9명임, 현재 회장(정부의 남녀공동참가의 내각부 최초 국장 역임)과 전무이사(농림수산성 고위공직자 출신)는 주 3일 근무임.
 - 회원은 연구자, 여성농업인, OB등 연 5천엔의 회비 납부 의무가 있음.
 - 약 3년 전부터 각 도도부현 농업회의소에 의뢰하여 사회보험 관계의 지원을 위해 노무사가 중소기업 지원 등 보급센터의 역할을 하며 푸드비즈니스 양성을 함. 약 200명으로 출발하여 2012년 약 700명이 농산어촌 여성네트워크로 활약하고 있음.
- 농산어촌 여성의 날 제정
 - 1989년 제정됨.
 - 1985년 나이로비 국제 여성회의 이후, 1999년 기본법 제정과 남녀공동참가법에 제정됨.
 - 이는 경영 차원의 농업·농촌과 여성이라는 젠더 입장이 동시에 추구된 법 제정이었음.
- 농림수산성의 보조사업은 ‘ひめこらぼ’와 전국 네트워크 ‘10월’로 이루어짐.

- 사업 주체가 직접 농림수산성에 사업신청을 하여 채택된 경우, 사무국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함.
- 생활개선회가 1977년 예산의 1/2을 제공하여 조리실을 겸비한 ‘농촌 부인의 집’을 설립함. 농산물 가공을 비롯한 경제사업을 통해 활동거점으로 삼기 위함임. 당시 의식주 개선으로 이불 세탁기를 도입하거나 건강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짐.
- 그러나 1990년대부터 하드웨어가 필요한 보급활동은 농림수산성 구조개선국으로 이전하였고, 생활개선회의 보조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용계획만 수립하게 됨으로서 ‘농촌부인의 집’은 도도부현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예를 들면, 가고시마는 현이 직접 여성농업인의 집을 만든 경우도 있음.

○ (사)농산어촌여성생활활동지원협회의 주요 업무

- 농산어촌 여성 지원 센터의 기능임.
- 첫째, 여성 역할 발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 둘째, 정보수집과 제공, 검색·열람의 장 설정,
- 셋째, 활동교환·연계강화·상호교류 지원,
- 넷째, 농산어촌 여성단체의 연계 강화 지원,
- 다섯째, 우량사례 발굴·심사·표창 및 홍보,
- 여섯째, 도시와 농촌의 교류,
- 일곱째, 국제협력·교류 지원,
- 여덟째, 비전과 행동계획 책정·대책 등을 제언,
- 아홉째, 상담기능

○ 최근 경제활동 촉진의 움직임

- 여성기업의 고도화 지원과 6차산업화에 조언, 조사연구 : 여성기업의 고도화에 필요한 지식·기술·정보 수집 및 발신과 실천활동경험을 공유하고 있음. 지역별 연수, 여성리더 연수, 초급전문가 양성강좌, 세미나 개최, 6차산업화를 위한 공급체인에서 주체간 연계에 관한 위탁조사 실시 등임.
- work-life valance 확립 :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과중노동이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지역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등 여성이 의사결정에 정식으로 참가가능한 환경 정비가 요구됨. 이후 더욱 ‘일과 생활의 조화’ 확립이 필요하게 됨.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연수회를 통해 가족경영협정 추진, 여성을 둘러싼 노동환경개선연수회 개최, 농업법인에서 여성이 지속하여 근무하기 쉬운 취업조건·취업환경 만들기, 자녀 양육에서 지원상담원의 활동을 지원 등임.
- 경영참가 촉진 : 경제활동 촉진이 여성의 경영참가 촉진과 관련이 있도록 유의하면서 추진함. 영농생활설계의 시점에서 본 경영관리임.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족경영협정 추진, 지역별 연수를 통해 복식부기와 가족경영협정을 활용한 경영

- 관리, 여성 리더 연수, 초급전문가 양성 강좌, 의식계몽 활동 등임.
- 국제적 관점에서 여성기업가의 개발과 연대 의식 양성 : 국제 회의 참가나 APEC 국제 여성기업가 세미나 개최 등임.
- 인터넷에 여성기업가의 상품 소개 : 사이트 운영 중 <http://www.weli.or.jp/hap/>

3.2. 연구자

가. 아베 스미코(安倍澄子) 선생

○ 개인 이력

- 사단법인 농촌생활개선 종합센터(이후 농업개발보급회) 출신의 연구자로서 27년간 근무(1977~2003년) 후 6년간 농촌여성 파트너쉽 기관에 근무함.
- 연구자이지만 실제 생활개선회의 각종 사업에 컨설팅과 자문 등으로 현장 경험이 많고 여성농업인이 당면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여 극복한 경험도 있음.
- 농촌여성 생활과 생활경영을 주요 연구 테마로 삼음. 2000년, 농업가계조사가 종료함에 따라 농가경영 분석에 생활비 문제가 필요함을 느낌. 그 이유는 현 농업 경영에서 비용 개념에 생활비가 포함하면 -30%나 되는 가족농이기 때문임.

○ 여성농업인 정책의 성립 과정

- 1975년, 여성은 전혀 경영을 모른 채 농업 생산노동에만 참가하는 것으로 인식함.
- 1992년, 중장기 비전을 통해 여성의 노동보수 평가 및 여성 자산을 평가해보고, 생활개선 담당자를 통해 1980년대 경영 부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였고, 도도부현의 전문기술인(10년 경험, 인정 시험 합격자)인 보급원이 부문별 생활기술 견습관으로 교육을 담당함.
- 1994년 여성농업인 그룹 활동자를 기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공기술과 먹거리의 판매 방식에 대해 교육함. 가공식품에 가격 결정 방식, 매니저, 손익분석을 포함한 경영분석 등에 대한 교육임. 특히 여성농업인의 기업 지원으로 판로확대, 상품개발을 위한 지원이 있었음.
- 1990년대까지 생활개선 담당 보급원이 담당하던 것을 2000년 이후 (보급원이 육성한) 기업리더가 농업위원 등 지역사회 의사결정의 장에 진출하기 시작함. 여성농업인을 위한 중간조직이라 할 수 있는 보급원, 농협, 농업위원회가 있음.
- 2010년 ‘농촌을 유지하는 여성’ 기본 계획에는 신규 취농, 취락영농에서 보급원을 통한 학습회 등 훈련을 강조하며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활동 창출을 목적으로 함.

-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을 유지한다는 의미는 생산 외에 부가가치 활동을 통해 농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지면서 가능해진 개념임.
- 1990년대 보급사업의 변화로 하드웨어 지원은 못하고, 마케팅이나 농협과 연계한 판매 사업에 대한 조언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집중됨. 특히 상품개발과, 판매처 확보에 주력함.
- 최근 개인자원은 생산~판매의 부문별 채산성을 추구하며 개별 경영의 지원은 경영 다각화를 말함.
- 이러한 개인 경영의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 보급원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로서 역할함. 즉 직매장을 만들더라도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한데, 농협과 행정을 적절히 연결하는 것임.
- 또한 기술이나 마케팅 전략은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을 강조하며 젊은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해당 지역의 슈퍼 코너에서만 판매되는 지역산 농산물을 강조하여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지역자원이며 지역문화로 한정하는 것임.

나. 이치다 토모코(市田知子 선생

- 농촌여성의 생활개선 보급사업은 미국 통치하인 GHQ시대의 영향임. 미국인의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농촌 가정생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계몽으로 시작됨.
- 농가 여성의 부가가치 활동(보존식품, 생활의 질 향상)에서 보급원이 가정학, 영양학을 교육함.
- 여성이 적극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50%보다 낮지만, 65세 이상은 2/3 이상이 농업에 참가함.
- 노동안전, 부담경감이 우선되어야 경영 참가가 용이할 것임.
- 농가 여성이므로 농업노동이 있지만, 재산이 없음.
- 1992년 중장기 비전 이후, 여성농업자에게 가족경영협약시 인정농업자가 되면 융자와 농업자 연금이 가능해짐.
- 리버럴 페미니즘적 접근
- 자유주의, 남녀 권리 동일을 추구하며 구별하지 않는 것을 말함. 1989년 일본 남녀고용기회균등으로 여성의 심야노동금지, 생리 휴가도 없어짐. 19세기 남녀 선거권, 교육권 쟁취 운동을 리버럴 페미니즘으로 파악함.
- 1999년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은 리버럴 페미니즘에 기초한 법 제정이라고 판단함. 즉 여성의 '경영+지역사회'에 기여는 참정권 차원의 평등이라고 봄. 이 법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에게 기회를 주지만 가사·육아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이를 적정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곤란함(연구자 의견).

○ 에콜로지컬 페미니즘적 접근

- 여성의 특징을 강조함. 생명을 기르고 안전·안심을 추구함.
- 1992년 중장기 비전에는 리버럴+에콜로지컬 페미니즘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가족경영협정(1999년)은 적정한 평가라고 추진하였으나 시대에 역행한 측면이 있음.
- 여성권리가 세계(사회 전체)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생태적 관점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함. 공민권 운동은 근대화주의이면서 환경보호 등을 주장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상품개발에서도 여성관점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임.

○ 라디컬 페미니즘

- 1960년대 미국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결혼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임. 일본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에는 인용되지 않음.

다. 카스야 미사코 (粕谷美砂子) 선생

○ 가정학적 접근으로 여성농업인의 보이지 않는 측면을 보이게 하는 노력을 함.

- 2016년 세계 가정학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임. 이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류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그 중 부인 명의의 토지를 주장함.

○ 여성의 사회참가가 증가하며, 생활개선회가 마을마다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이 활동함.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활동을 표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함.

- 생활개선회는 현재 지역 젊은 여성에게 전승하는 기회를 주고 있음. 가족 경영 중 작은 규모의 숙련노동을 여성이 계속 살리는 경영인력화가 필요함.
- 농업개량보급원은 그룹활동에 충고하는 차원이고, 실천은 여성농업인 그룹에서 이루어짐. 여성농업인 그룹이 가공장(지자체, 농협에서 조성금을 받는 경우도 있음)을 운영하는 사례가 가장 많음.
- 여성농업인이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활성화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함.

○ 여성의 활동이 보이도록 통계 데이터의 개선이 필요함.

- FAO가 만든 통계 MDGs
- 후계자 남성은 포함되고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 통계를 정비함.
- 경제활동과 여성의 비경제활동에 대해 work-life valance 를 추구함. 그러므로

가사·육아의 비경제활동을 평가하는 방법 논의, 농업노동 외에 가정노동, 고령자 개호 등 수입이 없는 노동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계기가 됨.

- 여성농업자의 기업에 남성 참가가 증가하고, 은퇴 세대의 귀농자에게 숙련노동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밝혀지 됨.

라. 카와테 토꾸야(川手督也) 선생

- 농업경영의 대부분은 가족경영, 농촌사회는 지역주민의 사적 자치에 의해 운영되는 영역이 많음.
 - 여성은 농업취업인구의 60%를 차지하는 등 농업·농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특히, 자녀양육이 일단락된 30대 후반부터 현저히 나타남.
- 여성의 농업 종사 패턴
 - 대부분의 경우, 결혼을 계기로 취농, 자녀 양육이 일단락된 시점부터 농업에 본격적으로 종사함.
 - 원래 농가 세대는 일반세대보다 여성의 취업률이 높지만 최근 들어 M자형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1. 인구 중 여성 비율

年	平成13年	平成14年	平成15年	平成16年	平成17年
農家人口	10,169	9,898	9,647	9,400	8,325
うち女性	5,194	5,056	4,926	4,801	4,232
女性の割合	51.10%	51.10%	51.10%	51.10%	50.80%
農業就業人口	3,820	3,751	3,684	3,622	3,338
うち女性	2,126	2,083	2,039	2,000	1,780
女性の割合	55.7	55.50%	55.30%	55.20%	53.30%
基幹的農業従事者数	2,364	2,308	2,256	2,197	2,365
うち女性	1,112	1,074	1,042	1,013	1,094
女性の割合	47.00%	46.50%	46.20%	46.10%	46.20%
総人口	127,291	127,435	127,619	127,687	127,757
うち女性	65,047	65,183	65,315	65,392	65,416
女性の割合	51.10%	51.10%	51.20%	51.20%	51.20%

표 2. 연령별 농업취업인구와 기간적 농업종사자 수

○年齢別農業就業人口 単位:人、%

	15-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以上	合計
男性	70720	57750	54830	115820	185730	449540	710840	1645250
	63.7	57.4	33.8	37.1	36.8	42.5	49.5	44.7
女性	40240	42890	107420	196410	318930	608420	724560	2038870
	36.3	42.6	66.2	62.9	62.9	63.2	50.5	55.3
合計	110960	100640	162250	312230	504660	1057960	1435400	3684120
	3.0	2.7	4.4	8.5	13.7	28.7	39.0	100.0

資料:農林水産省「農業構造動態調査」平成15年)

○年齢別基幹的農業従事者数 単位:人、%

	15-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以上	合計
男性	1040	27040	48940	108850	175450	385430	467410	1214140
	83.9	80.6	58.6	48.9	45.2	50.9	60.8	53.8
女性	200	6500	34560	113790	212970	372390	301480	1041900
	16.1	19.4	41.4	51.1	54.8	49.1	39.2	46.2
合計	1240	33540	83500	222640	388410	757820	768890	2256040
	0.1	1.5	3.7	9.9	17.2	33.6	34.1	100.0

資料:農林水産省「農業構造動態調査」平成15年)

(注)基幹的農業従事者とは、農業に主として従事した世帯員(農業就業人口)のうち、調査期日前1年間のふだんの主な状態が「仕事に従事していた者」のことをいう。

-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이나 지역농업의 다각화·고도화에 따라 고부가가치화의 담당자로서 활약함.
 - 책임을 지닌 다양한 부문을 담당하고, 가족경영협정 추진으로 일정 경영계획을 실현하여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함.
 -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능성
 - > 농림수산성은 일로서 자율성이 높고(자기재량요 범위가 크고), 일터와 삶터가 근접한 가정생활 활동과 다른 활동의 양립이 가능한 남녀공동참가를 실현하기 쉬운 매력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함('농산어촌 남녀공동참가사회'형성에 관한 종합적인 추진에 대하여...1999년 11월 1일부, 농산제6825호, 각국장·장관 연명통지).
 - > '농산어촌형 라이프스타일'과 '지향하고자 하는 여성의 모습' 농산어촌의 여성에 관한 중장기비전 보고서(1992년)...농산어촌의 장점을 살린 삶의 방법과 실현의 담당자로서 여성의 바람직한 모습
 - > 가족경영협정체결에 따른 가사·육아·개호 등 경제적 평가 등
- 여성의 경영 참가의 모습은 가족경영협정 추진에 따라 지역 리더층을 중심으로 일정정도 참가함.
 - 가족경영협정은 가족농업경영에 관계된 각 세대원이 의욕과 보람을 갖고 경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농업경영을 지향하고, 경영방침이나 역할분담, 가족 모두가 일하기 쉬운 취농 환경에 대해 가족간에 충분히 대화를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임.

- 농림수산성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3월말 현재, 34,521호의 농가가 가족경영 협정에 체결함.

○ 지역농업·사회에서 농촌여성의 활약은 농촌여성기업 추진으로 나타남.

- 최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나 직매점, 농가레스토랑, 농업체험 등 사업을 하는 여성 기업 활동이 주목받고 있음.
- 농촌여성 기업 수는 전국 9,050건
- 활동내용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이 가장 많음.
- 판매금액은 300만엔 미만이 59%, 1,00만엔 이상은 전년도보다 60건이 증가함.

○ 농촌여성의 경영·생활에서 위치

- 아직 불충분한 노동보수와 수익의 분배임.
- 아주 적은 경영자산(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경영자로서 위치나 사회참여(농협 임원 등)에 어려움이 있음.
- 농업에 더해 가사·육아·개호 등이 큰 부담임.
- 불충분한 능력향상의 기회나 불충분한 농업경영자로서 사회적 위치는 여전히 존재함.

○ 여성의 농업경영자로서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는 인정농업자

- 인정농업자로 인정받고 있는 여성의 건수는 3,685건(2005년), 전체의 약 2.14%에 불과함. 그 이유는 ‘세대주의’ 적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임.
--> 인정농업자는 농업경영에 관해 공적지원을 집중적 또는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대상으로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시정촌이 기본구상에 따라 인정함.
- 사회참여 수준은 여전히 적음. 지역농업이나 마을만들기, 집락운영에서 계획이나 의사결정의 장에 참여도 극히 적음.

○ 농촌여성의 현상과 과제

- 여성농업자의 현상은 결코 암울하지만은 않음. 경영·생활 참가는 어느 정도 진행중이며 다양한 활약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지역 리더층의 움직임은 자가의 농업·생활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특히 도시까지 확장하고 있음. 내용적으로는 좁은 의미에서 농촌여성의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산직, 직매, 전통문화의 계승이나 새로운 생활문화 창조, 지역만들기, 지역자원관리, 환경문제에 대응, 고령자 복지, 도시주민이나 소비자와 교류 등 생활자의 시점을 살린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임.
- 능력 향상 면에서도 시정촌 농업위원이나 시정촌의 회의원에 자신의 대표를 보내는 운동이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음. 그들의 움직임은 세상이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음.

- 그러나, 경영·생활에서 위치나 지역농업·사회의 참여는 아직 불충분하며, 충분한 능력이 발휘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농업경영자로 여성농업인의 과제

- 농업·농촌을 둘러싼 어려움이 증가하는 외부환경과 사적자치에 의해 운영되는 영역이 큰 농업·농촌 분야는, 생활자의 시점을 살린 여성의 농업경영 및 지역 농업·사회운영에 참가와 함께 농업경영자 및 지역농업·사회의 담당자로서 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임.
- 농업경영자로서 경영에 참가하는 정도에 따라, 관련된 지원(연수, 네트워크 형성 등)을 받고 경영자로서 능력 향상이나 지역리더층으로 육성이 요구됨. 그러나 가사의 부담과 농업경영자로서 사회적 지위가 불충분하므로 기술과 경영에 관한 연수 기회가 불충분하고 필요한 정보에 접근도 원활하지 못함.
- 그러므로 그에 대응한 과제로서, 여성이 참여하기 쉬운 연수를 기획하고 실시하거나(특히, 자녀 양육기에는 배려가 필요함), 여성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정농업자로 인정 등 여성의 농업경영자로서 사회적 위치 부여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특히 경영 참가를 촉진해야 함.

○ 지역농업·사회의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의 과제

- 지역농업·사회에서 의사결정의 장에 참가나 주체로서 정보 접근이 불충분하므로 능력향상이나 연수의 기회도 불충분하며 지역리더층에서도 마찬가지임.
-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리더층에 대해 중점적으로 능력개발과 연수기회를 제공해야 함. 또한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계발활동을 촉진해야 함.

○ 여성농업인 관련시책의 평가와 과제

- 기본적인 방향은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농촌여성의 중여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불충분하며, 인재육성에 대해서도 시간이 필요한 점이란 인식이 매우 불충분함.
- 지금까지 인재육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농업개량보급조직이 약체화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대신할 지원체계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임.
- 농업이 가족경영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 문제를 포함해 어느 정도 공적 지원이 필요함.
- 원래 인재육성은 시간이 걸리며 이에 대응한 평가방법이 미확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마. 하라 (原珠里)

- 농촌사회는 이전부터 대부분 남성인 ‘가장’이 ‘가족농업 경영주’로써 의사결정하는 농가와 농가를 단위로 하는 ㄱ마을 구조임. 실제 법률상 평등하더라도...
 - 농지 자산상속은 후계자인 남성에게 집중하고,
 - 농지 소유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며,
 - 가족 생활이나 농업경영에서 역할 분담이 성별에 따라 고정적이며,
 - 이 역할에 대한 평가, 보수가 불평등하고,
 - 지역사회에서 의사결정 기관에 참가가 성별 비대칭이 발생함.
- 비농가 증가, 농외취업증가, 비농가 출신 여성이 결혼을 통해 농촌사회에 진입 등 농가나 마을 사회 밖의 사회와 접점이 많아짐
 - 도시와 비교하여 농촌 젠더 관계의 특수성은...도시와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점점 중요한 요소가 됨.
 - 정책, 효과로서 여성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평가받는 여성도 증가하지만,
 - 한편, 가사나 육아 농업경영 외에 여성기업 활동을 담당하는 등 농촌여성의 과중 부담이 되었고,
 - 능력이나 기회가 있는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 간의 격차가 확대하고 젠더 의식의 본뜻과 현상의 괴리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여 예전보다 농촌에서 젠더에 관한 현실은 복잡하여 단순히 파악하기 곤란해짐.
- 1994년 이후 여성농업인 연구의 전개
 - 熊谷苑子の 문제의식 : 여성이 농업노동력을 과반을 차지하면서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보이는’ 분석 기법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리고 자립한 ‘보이는’ 여성의 바람직한 모습과 가족경영은 양립할 수 있는가?
 - > 농가 또는 농업경영에서 개인주의적 시점의 중요성 인식과 후계자 육성과 여성의식의 관련을 분석하여 새로운 활동으로서 여성기업 현상을 분석함. 여성의 ‘개인으로서 자립’을 향하 여성노동 파악과 개인 분석의 필요성을 논함.
 - > 개인으로 여성에 관한 연구 전개
 - 농가 또는 가족농업경영과의 관계에 관한 영역에는 농촌 여성의 생애주기의 다양화가 인식(大内, 2004)되거나
 - 농업인으로서 여성이 연구대상이 되어 여성의 취농선택이나 경력 형성경위나 능력양성(片山 2007, 仁平·伊庭 2008, 原 2010), 농업노동에서 보람의 성별격차 분석(渡辺, 2009)), 전업농가에서 ‘가부장적’ 성격은 약해지고 농가가 재구축되고 있음을 분석(永野, 2002),
 - 농가여성이 생산노동에 더해 재생산 노동도 담당한다는 성별분업의 패턴에 변화가 없음을 분석(熊谷, 2011)하거나 정책 전개에 따른 가족경영협정 추이가 농

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齋藤, 1997, 川手·西山 1998)

- 마을 또는 지역사회와 여성에 관해서는 총론으로 ‘농가·마을·남성사회’라는 모습은 여전히 강진하다는 분석(川手, 2000)과 함께 젠더 문제 인식이 진전되지 않은 현상을 지적(中道, 2001)함. 각론으로 농가의 대표자가 아닌 여성이 지역 리더쉽 구조에 참가(藤井, 2002), ‘귀촌자’로서 지역자원관리에서 소외되어 있는 ‘귀촌’ 결혼 여성의 자원관리의 성격(秋津, 2007),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에 의해 지원자격 취득(原, 2009), 마을 범위와는 다른 범위 채용 등 여성이 정식 멤버로 인정되지 않는 마을단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얻는 이점과 여성의 전략을 분석함.
- 농산물 직판소와 농촌관광 등에서 다양한 전개의 실태와 과제(岩崎, 2002, 宮城, 2008), 세대교체의 문제점이나 성공사례에서 남성 진출과 역할 변화(中道, 2008), 사회적 기업으로 여성기업(澤野, 2012) 등이 있음.

○ 농촌 여성의 특징 파악을 위해 본질주의적으로 보는 입장은 취하지 않음.

- 원래 젠더란, 사회나 문화에 따라 구축된 性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하는 역할, 할 수 없는 능력과 같은 여성의 특징을 본질주의적으로 파악하는 견해로는 현재 젠더 관계를 문제시하고 변화시키려는 관점이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그러나 농촌여성이라는 특징, 농촌 여성의 여성성,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중요한 내용임. 그러므로 젠더 비대칭성의 배경인 ‘농촌여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함.

○ 농촌 여성의 특징 1 : 경력으로 본 여성의 특징

- 결혼 전 세대의 직업이 농가가 아닌 비율이 높고 농가인 비율이 20%에 불과함. 비농가 출신 여성이 다수파임.
- 남성과 비교하여 농업 이외의 학습경험, 농외취업 경험도 많다고 추측됨.
- 농촌에서 여성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 他所者로서 성격이 자원관리, 네트워크 형성에 특색으로 연결됨.

○ 농촌 여성의 특징 2 : 오랜 기간 성별 역할 분담에서 나온 여성의 특징

- 농촌사회의 노동은 성별에 따라 편성됨, 기계화된 현대에도 쉽게 불식되지 않음. 농가경영 전체로 보더라도 전통적인 여성 역할의 중요한 부분은 자급채소 생산과 가공, 요리 등 ‘생활’을 위한 일이었음.
- 여성은 ‘가사’를 우월하게 잘하고, 생활 관련 지식과 기술을 지님. 그러므로 소비자인 도시 여성과 ‘생활일’로서 공감의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 남성과 다른 농촌여성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그런 역할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온 여성이 생활상의 일을 시작으로 경제적 대가

를 위해 움직인 것이 여성 기업임.

○ 농촌 여성의 특징 3 : 외부에서 이미지로서 농촌 여성의 정체성

- 秋津(2007)에 의하면 유럽 농촌여성과 농촌개발에 관한 연구의 이론적 전개는,
제 1단계 : 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정책적 과제로 발견
제 2단계 : 남녀간 차이나 불평등을 지적, 여성의 능력향상으로 사회의 주체화
제 3단계 : 性·정체성 개념 탄생으로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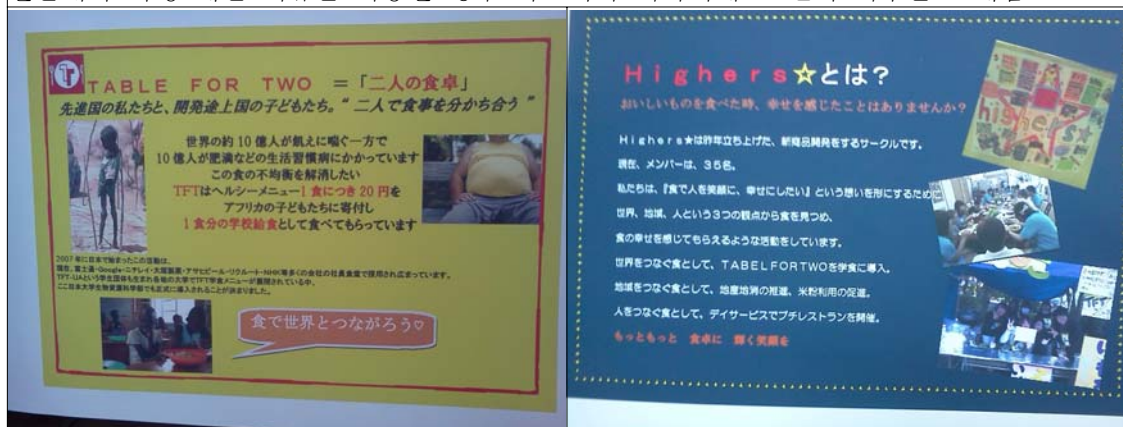
젠더나 개발에서 다양하고 복선적인 전개 = 구축적 연구

- 먹거리·농업·아이들 영역에서 스스로 가치를 표현함.

남편과 자신을 대치하는 형태로 보지 않고, 도시 여성에 비해 자연에 가깝고 환경이나 먹거리의 안전성을 배려한 생활을 하며,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거리나 자연에 관계된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존재로서 스스로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음.



일본대학 학생 개발 메뉴를 이용할 경우 아프리카 기아에게 20엔의 기부를 소개함.



동경농업대학



소화여자대학



일본대학 식품비즈니스 학과 방문

